환영사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오늘 우리는 북한 정세 브리핑과 더불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중요 포인트는 무엇이었고 하반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북한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상황의 주된 관리자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021년을 어떤 좌표로 봐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7년은 위기, 2018년은 희망의 한 해 였습니다. 분단의 역사에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2018년에 일어났습니다. 2019년은 하노이 노딜 이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왔던 인내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는 남북한 관계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1년을 맞았고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공동선언문은 한국과 미국 두 동맹국이 북한과 한반도를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대화, 협력, 관여를 지지하겠다'는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여는 단순한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틀 속에 북한을 묶어두는 전략이 관여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이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북미 양자회담을 해왔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적 협조, 정책적 조정에 의한 공동관여가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내하며 기다렸던 2019년, 혹은 2020년과는 다른 역할과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관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독자적인 역할을 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사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설득해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은 2018년과 같이 완벽하게 희망을 가동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부분적 재가동이 가능한 구조에 놓였다는 것, 앞으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연속성의 동력을 유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올해 주어진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현재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구조로 보입니다. 결기는 대단해 보이는데, 과연 조건과 능력이 결기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건설적인 대화,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